

食生活改善의 必要性

李 東 培

〈農水產部 糧政局長〉

1. 食生活改善의 必要性

最近 지구상의 人口膨脹 및 세계도처에서 發生하고 있는 食糧問題는 Malthus論的인 위기도래를 새삼 느끼게 하고 있으며 人間의 生存과 직결되는 食糧의 安定的 供給은 우리 人類가 해결해야 할 當面課題중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본래 大多數 國民이 農業에 종사하며 살아온 傳統的인 農業國으로서 대부분의 食糧을 自給自足하였으나, 日帝 및 8·15解放, 6·25 등을 거치는 동안 농업기술의 낙후 및 農耕地의 황폐화로 심한 食糧不足事態를 겪어 왔다.

그 이후 70年代부터 우리 경제가 급속히 성장해옴에 따라 이와는 다른 형태의 問題가 발생하여 食糧事情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즉 人口增加에 따라 絕對食糧需要는 급격히 증가하고, 國民所得이 向上됨에 따라서 食品消費 패턴은 高級化 내지 多樣化되는 한편 穀種間 소비불균형 추세가 深化되어 가고 있다.

예를 들면 '75년 國民 1人當 年間 124kg이던 쌀 消費量이 '82년에는 130kg으로 5% 增加한데 반하여, 보리쌀은 같은 기간에 36kg에서 14kg으로 거의 3분의 1로 감소하였다.

우리나라의 傳統的인 食生活패턴이 쌀을 中心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과 所得向上에 따라 보리는 쌀로, 돼지고기·닭고기는 쇠고기로 代替되고 감자·고구마 등의 消費가 減少하는 現狀은 쌀·돼지고기 등의 增產努力에도 不拘하고 全體食糧은 부족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肉類의 消費增加는 飼料穀物의 需要增加를 誘發하여 全體 食糧自給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實情이다.

한편, 食糧의 供給側面을 보면 간척과 개간 등을 통한 耕地의 量的擴大를 꾸준히 促進하고 있으나 農耕地는 都市化와 工業化에 따라 年平均 6千ha씩 잠식당하고 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이처럼 制限된 農耕地도 消費者들로부터 外面당하고 있는 보리 薯類 등의 栽培面積이 減少됨에 따라 耕地利用率이 '70년의 142%에서 80년에는 125%로, 82년은 122%로 떨어지고 있는데 있다. 이와 같은 狀況은 農村經濟力 向上에 장애요인으로 作用할 뿐 아니라, 食糧의 自給率을 70년의 81%에서 82년에는 53%로 떨어뜨려 每年 500萬% 이상의 穀

表 1. 쌀·보리쌀 消費量 轉移

(單位: kg/1인, 년간)

	'70	'75	'80	'81	'82
쌀	136.4	123.6	132.4	131.5	130.2
보리쌀	37.3	36.3	13.8	16.2	14.0

表 2. 食糧自給度 趨移

(單位：%)

	食 糧	쌀	보 리 쌀	밀	콩	主 穀 (쌀+보리쌀)
'70	80.5(86.2)	93.1	106.3	15.4	86.1	96.4
'75	73.0(79.1)	94.6	92.0	5.7	85.8	93.9
'80	56.0(58.7)	95.1	57.6	4.8	35.1	87.3
'81	43.2(53.9)	66.2	72.7	2.7	29.7	67.3
'82	53.0(70.3)	92.8	85.9	3.4	32.4	91.8

※ ()는 사료용 제외

물을 輸入하고 있는 實情이다.

不足되는 食糧은 外國에서 導入하면 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今後의 世界食糧需給은 限定된 農業適地와 地力の 쇠퇴, 그리고 빈번하게 發生되는 氣象異變으로 食糧生産量은 人口增加에 따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食糧需要에 못미쳐 不安定한 전망이다.

最近의 世界人口는 약 45億으로 2千年에는 62億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더우기 世界는 하나의 國家가 아니라 多元化되어 있고 食糧輸出國도 몇몇 나라에 편중되어 있는 結果로 先進國의 생산과잉 및 과잉섭취에 비하여 後進國은 생산不足, 구매력不足이라는 先·後進國간의 食糧需給不均衡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UN의 통계에 따르면 現在에도 무려 5億의 人口가 食糧不足으로 인한 營養失調에 허덕이고 있고 5千 3名이 餓死되고 있는 實情이나, 앞으로 10年 이내에 그 規模는 劃期的인 食糧增産이 없는 한 培増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氣象異變 등으로 食糧需給에 근소한 차질만 생겨도 國際穀價는 크게 상승할 수 있으며, 食糧武器化 경향 역시 배제할 수 없는 등 여러가지 不安定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國際穀物市場의 형편이 앞으로도 오히려 나빠질 조짐이 있음을 감안할 때 主穀까지 海外에 계속 의존함은 國家安保의 次元에서 極히 危險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食生活에서의 問題點은 이러한 食糧

需給側面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營養面에서도 절실한 것이다. 우리가 고집스러운 정도로 지켜오고 있는 쌀 위주의 傳統的인 食生活은 비타민 B₁ 不足, Ca·Fe 不足등 영양상의 결함과 體質의 산성화등 많은 問題點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問題點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쌀, 쇠고기 위주의 食生活을 國內賦存食糧資源을 最大限 活用할 수 있도록 바꾸고 生産된 食糧을 한톨도 浪費함이 없이 아끼는 것만이 앞으로 심화되어 갈 世界的인 食糧難을 슬기롭게 대처하여 主穀自給을 達成하는 길이며 우리의 健康을 向上하게 된다는 食生活改善의 必然性에 귀착하게 되는 것이다.

2. 食生活改善의 長期推進 方向

이와 같은 觀點에서 政府는 다음과 같은 基本推進方向下에서 우리의 여건에 맞는 韓國型 食生活을 持續적으로 定立해 나가고 있다.

첫째, 國內賦存食糧資源을 最大限 活用한 食糧의 自給度 提高이다.

쌀과 쇠고기 위주의 非合理的인 消費形態를 보리, 감자, 고구마, 과일, 채소, 돼지고기, 닭고기, 水産物등 國內增産餘力이 充分的인 品目으로 擴大시키고, 增産에 限界가 있는 品目은 消費를 節約해 나감으로써 食糧自給度を 높일 것이며 이러한 食糧自給度 提高는 農家 所得増大 및 産業間的 均衡成長에도 큰 기여

를 하게 될 것이다.

둘째, 適正水準의 營養供給이다.

現在 韓國人의 食生活은 단백질 및 무기질의 供給水準이 낮고 動物性단백질의 구성비가 過少하다는 등 적지 않은 問題가 있다. 따라서 단백질, 칼슘, 비 타민과 무기질, 탄수화물, 脂肪等 5個 基礎食品群을 골고루 섭취시키고 또한 각 食品群內에서도 可能한 한 여러가지를 섞어서 먹는 넓은 意味의 混食을 生活化함으로써 편식으로 인한 營養不均衡 問題를 해소하고 所得水準의 向上에 따라 더욱 많아질 영양과잉에 의한 비만증, 당뇨병, 고혈압 등 成人病의 問題도 事前에 防止하자는 것이다.

셋째는 食糧의 損失防止 및 安全性 確保에 있다.

食糧의 合理的인 관리, 즉 생산加工에서 消費되기 까지의 流通, 保管過程에서의 食品의 安全性確保는 물론 科學的인 調理 등의 重要性을 재인식시킴으로써 調達된 食糧資源의 利用效率를 높이고자 한다.

넷째, 合理的인 食生活의 영위다.

消費없고 經濟的이며 衛生的이고 화목하며 主婦勞動節約的인 올바른 食生活文化와 食生活 예절을 確立하여 우리 社會를 보다 健康하고 經濟的으로 만들고자 한다.

3. 結 論

結論的으로 國民食糧의 安定的 供給과 適正水準의 國民營養供給을 實現해야 하는 當위성 때문에 食生活改善의 必要性이 要求되는 것이며 이를 生活化하기 위하여는 持續的인 對民 教育弘報와 함께 加工食品의 開發·普及이 대단히 重要하다고 본다.

社會·經濟의 發展과 함께 우리의 日常生活도 점차 바빠짐에 따라 食生活도 實質的이며 效率的인 方法으로 이끌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특히 強調하고 싶은 것은 加工食品의 開發普及에 따라 기대되는 效果가 크다는 점이다. 즉, 食品을 다양하게 利用함으로써 새로운 消費와 創造가 이루어져 賦存食糧資源의 利用度を 높이고 한번에 많이 나오는 食品原料를 적절히 加工하여 長期保管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資源損失을 막고 食料品價格을 안정시켜 줄 뿐 아니라, 食品의 營養과 맛을 合理的으로 조정할 수 있고 새로운 食사 구조를 誘導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는 점 등의 效果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點 등을 감안, 食品産業의 발전이 우리 食生活改善에 절대적인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

식량절약 식량자급 혼·분식 건강가족